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이근택

가슴 아리게 하였던 우리들의 사랑

만해 했다.

역시 이런 노래가 좋아. '10월 유신의 노래'. 그런데 갑자기 풍금 소리가 "뽀로로" 하고 울렸다. 아차, 또 어디서 반박자 나왔나 보다. 우리는 모두 긴장하였다. 어디서 틀렸지? 선생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풍금 앞에 앉아 있다가 나가셨다. 잊을 수 없는 음악 시간. 왜 그러셨을까?

그 후로 우리는 음악 선생님을 좋아하였다. 당시에는 눈썹을 꺾고 검게 칠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의 눈썹을 보고 우리도 눈썹을 꺾기로 하였다. 화장품이 없어서 눈썹 있던 자리에 연탄 가루를 발랐다. 체육 시간이 끝나면 눈썹이 줄줄 흘러내렸다.

고등학교 때에는 오후 수업 두 시간 동안 열병과 분열 연습을 하고 총검술도 연마하였다. 오와 열을 똑바로 맞춰 걷기 위해 기계를 되었다. 플라스틱 모형 총으로 무수히 많은 허공을 찔러댔다. 땀방 아래 베풀었던 수많은 시간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어깨를 다독이던 교련 선생님.

교수님을 일 년 만에 만났다. "세상 후가버가 얼마인데 이런 걸 다 사오냐." 큰 칼로 수박을 썰었다. "상무대에 잡혀갔다 온 후로 몸이 영 내 몸 같지 않네." 수박 썰

맨 앞의 아이는 교문의 문살을 부여잡고 울었다. "미안하다. 다시 오마." "분해요. 억울해요." "어쩔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해라." 달빛이 가무뎠었다. 주저앉거나 뒤 돌아 흐느끼는 아이들을 보며 동네 아주머니도 같이 울었다. 1989년 여름 늦은 밤, 전교조 해직 교사 몇 명이 출근 투쟁을 끝내고 학교 앞에 세워 둔 경찰차에 올랐다.

어느 날 보충수업 시간에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가르쳤다. 마침 오후 6시였다. "국기 하강식이 뭔지 아느냐" 물었다. "몰라요." "6시가 되면 모든 관공서에서는 동시에 태극기가 내리지고 사이렌이 울렸지. 그러면 버스도, 자전거도, 행인도, 강아지도 모두 제자리에 서 있어야 했어." "정말요? 우습네요. 바보 아닌가요?"

설레고 그리는 것들이 세월의 변화에 묻혀 잊힌다.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이었는데 지나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있다. 가슴 아리게 하였던 우리들의 사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광주일고 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현지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가

해석하는 것을 해몽이라 하고 내일을 짐치는 것을 몽점이라 한다.

현재를 생활하면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밝혀야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 성공할 수 있듯이 꿈도 해몽을 정확하게 하여야 길하다.

꿈이나 현실이 다르지 않다.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라. 그 파란만장한 일들은 다 꿈속 같다. 또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일들을 접했을 때 꿈인지 생인지 구분할 수 없었나? 꿈속에서 어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현실처럼 가슴 아파하는 고통의 아픔은 실제이다. 꿈속에서 꿈이라 말할 수 있고 느끼는 자 드물다.

장자의 일화를 들어보자. 어느 날 장자가 나비가 되어 이 꽃, 저 꽃 희롱하는 꿈을 꾸다 깨달은 바 있었는데 나비가 장자 곧 자신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장자가 꿈에 나비로 변한 것인가, 현재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로 변

한 것인가? 장자가 곧 나비일 수 있고 나비가 곧 장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성현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범부종생은 꿈속에서 꿈만 아니라 현실세계도 꿈속이라 했다. 짧은 시간의 일들을 꿈이라 한다면 무한한 생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불 때에 현실이라 믿는 것도 눈 깜짝할 시간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환이 있는 모든 것은 꿈이나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를 알고 번개와도 같으니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한다" 고 했다. 꿈은 우리의 집착한 생각과 함께한다. 밤에 꾸는 꿈만이 꿈이 아니라 우리의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곧 꿈이다. 한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모두 꿈인 것이다.

원효스님께서는 꿈을 현실에 비유해 설명한 적이 있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몸이 큰물에 떠내려가는 꿈을 꾸고 실제처럼 느낀다. 하나 이것은 단지 꿈인데 꿈인 줄 모르고 실

제로 물에 빠진 줄 알고 매우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도 문득 또 다른 꿈을 꾸어서 내가 지금 꿈일 뿐 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때가 있다. 마음이 총명하면 꿈속에서 꿈인 줄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면 큰물에 빠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아직 제 몸이 침상 위에 누워있음을 알지 못한다. 애써 노력하여 머리를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 완전히 깨어나면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음을 안다.

이렇게 하여 완전히 꿈에서 깨어났을 때 살펴보면 물에 떠내려가던 몸은 없다. 오직 침상에 오묘히 누워있는 본래 자신의 모습뿐이다. 원각경에 마치 투명한 마니보주와 오색이 비치자 그 빛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 것이거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으니라 하였다.

그렇다. 무엇을 꿈이라고고 무엇을 현실이라 하는가. 무엇이 허상으로부터 깨어있으면 현실이요 허상으로부터 집착해 있으면 현실도 결국 꿈속이다. 투명한 구슬에 오색이 나타나듯...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양동욱

자녀와 성에 대해 말합시다

지?" 아이의 생리가 불규칙한 편인데 유독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혹시 임신한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다가 아이가 생리하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편입니다.

최근에 필자가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을 만나서, 평소 자녀와 어떤 성적 대화를 나누는지를 물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이다. 부모와 자녀의 성적 대화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10대의 성(性)은 금지와 위협이라는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이 더 마땅해졌다. 이것은 자녀의 성을 자위행위, 성교, 임신 등과 같이 행위 혹은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내 아이만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머물러 있길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부모

의 마음이다. 외에도 부쩍 신경을 쓰며 화장을 하는 아이, 여자 친구 선물을 사주어야 하니 용돈을 더 달라는 아이, 공부하는 적음란 사이트를 클릭거리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난다.

인간은 태어났기부터 성적인 존재이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무성의 존재이다가 성인이 된 후 비로소 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녀와 가까워지기엔 너무 먼 사이가 되어 버린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의 성을 부정하고 혼계와 금지로 일관하게 되며 자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부모와 성적 대화를 형을 굳게 닫아버린다.

부모가 자녀의 성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다가가면 자녀의 마음도 열리게 된다. 성교육의 가장 좋은 형태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성적 대화이다. 성교육은 짧은 시간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계속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교육은 가정에서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부모가 자녀의 성교육을 위해 완벽한 대화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아이가 성에 관해 질문을 해오거나 궁금증을 표현할 때, 혹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에 관한 이야기가 튀어나올 때가 바로 성적 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다. 또 성적 대화는 남녀의 성기의 차이나 성교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성적인 존재로서의 느낌과 수용, 조화로운 삶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와 성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10대의 문화,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나 연예인 등과 같이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이의 성적 호기심이나 궁금증 그리고 걱정거리를 하나씩 이야기 해 나가는 것이 좋다.

성적인 존재로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이는 자신의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이다. 부모에게 달려갈 것이다.

<건강과 성 발달관 관장·성교육 전문가>

알 수 없는 신조어 난무...한글날 부끄럽다

'드립' '얼푹' 등의 용어가 생겨나고 있다. 흔히 젊은이들이 쓰는 인터넷 용어들이다. 이 같은 용어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이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조차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 언어가 한글을 파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소플'이란 품의 근원이 좋아 건강미를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을 뜻하는 말이다. 또

'꿀벅지'라는 말도 있다. 여성의 잘 빠지고 미끈한 허벅지가 마치 꿀을 빨듯이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 같다는 의미로 소위 성적인 자극을 주는 선정적인 단어들이다. 그런데 방송에서조차 스스럼없이 쓰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요즘 10대나 20대들이 누구나 따라 하고 한 술 더 떼서 훨씬 자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거침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다면 육체를 연상시키는 '개드립'이라던가 갑자기 북 뛰어나왔다는 말

을 줄인 '갑북뛰'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극적이다.

이쯤 되면 나중에는 정말 순수한글이 언제 어디서 소리 소문 없이 변형된 언어로 돌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신조어가 생기고 은어나 비속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언어가 너무 왜곡되는 등 정도가 심하면 단지 인터넷 시대의 한 세태라고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겠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전남 섬 쓰레기 넘치는데 처리시설 없으니

전남지역 유명 섬들에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는 물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바다에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까지 겹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 또는 매립시설이 별로 없는 탓에 임의로 소각하는 섬들이 많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민이 살고 있는 섬 296개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28개소와 소각시설 34개소 등 62개에 불과하다. 섬 지역 특성상 쓰레기를 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를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하는 셈이다.

주민들이 '알아서' 태우거나 매립하다 보니 해안가나 공터마다 환경오염을 낳고, 태운 쓰레기 잔해와 연기로 검은 고래도 섬에 유입되어 있다. 주민들이 해마다 여름철에 섬에 들어오면 쓰레기 처리를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맡는 게 순리다. 해양쓰레기도 그렇고, 국립해상공원에 묶여 이렇다할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하면 얘기다. 현재 국립공원 내 쓰레기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처리하고 있질 않는가.

환경부도 섬들에 쓰레기가 넘쳐난다고 한다.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는 물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바다에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까지 겹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 또는 매립시설이 별로 없는 탓에 임의로 소각하는 섬들이 많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민이 살고 있는 섬 296개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28개소와 소각시설 34개소 등 62개에 불과하다. 섬 지역 특성상 쓰레기를 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생활폐기물 처리를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하는 셈이다.

주민들이 '알아서' 태우거나 매립하다 보니 해안가나 공터마다 환경오염을 낳고, 태운 쓰레기 잔해와 연기로 검은 고래도 섬에 유입되어 있다. 주민들이 해마다 여름철에 섬에 들어오면 쓰레기 처리를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맡는 게 순리다. 해양쓰레기도 그렇고, 국립해상공원에 묶여 이렇다할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하면 얘기다. 현재 국립공원 내 쓰레기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처리하고 있질 않는가.

'카지노 원정 도박' 공직자 자질 의심스럽다

감사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상습적으로 카지노 도박을 벌인 공직자 288명 공직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차관보급을 비롯해 5급 이상만 23명에 달하고 대 학교수, 교사, 검찰수사관, 경찰, 정부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있었다. 이들이 과연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적발된 288명 가운데는 전남지역 공직자도 2명이나 끼었다. 목포해양대 A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무려 72차례에 걸쳐 근무지와 출장지를 무단이탈하며 카지노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특히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근무지 학교 공사 관련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빌렸다.

전남도청 6급 직원 B씨도 2009년 3월부터 1년 동안 41회나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근무지와 출장지를 무단이탈하면서 까지 원정도박을 해왔다. 이들의 행위는 '오락'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 '도박'에 가까웠다.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공직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차관보급을 비롯해 5급 이상만 23명에 달하고 대 학교수, 교사, 검찰수사관, 경찰, 정부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있었다. 이들이 과연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적발된 288명 가운데는 전남지역 공직자도 2명이나 끼었다. 목포해양대 A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무려 72차례에 걸쳐 근무지와 출장지를 무단이탈하며 카지노를 드나들었다고 한다. 특히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근무지 학교 공사 관련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빌렸다.

전남도청 6급 직원 B씨도 2009년 3월부터 1년 동안 41회나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근무지와 출장지를 무단이탈하면서 까지 원정도박을 해왔다. 이들의 행위는 '오락'의 수준을 한참 넘어서 '도박'에 가까웠다.

카지노에서 도박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공직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차관보급을 비롯해 5급 이상만 23명에 달하고 대 학교수, 교사, 검찰수사관, 경찰, 정부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있었다. 이들이 과연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無等鼓

월스트리트는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거리 이름이다. 원래는 미국에 이민 온 네덜란드인들이 1653년 인디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벽(Wall)에서 유래된 말로 고유명사였다. 하지만 179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거래소가 들어서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라는 일반명사가 됐다.

월스트리트는 왜지와 연인이 같다. 네덜란드인들이 정주한 곳이라 해서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란 의미의 '뉴암스테르담'으로 불리던 식민지 시절, 지금의 월스트리트는 바로 왜지를 반복하는 곳이었다. 월스트리트의 최초 점령자가 탐욕을 상징하는 돼지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곰과 황소는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돈을 못 번다'는 격언도 월스트리트와 관련이 있다. 곰과 황소는 각각 증시의 약세장과 강세장을 상징하는 동물로 주식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일관되게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의미다. 반면 탐욕스러운 돼지는 부화뇌동하는 매매를 하다보니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아 항상 돈을 잃는

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대중의 비판을 받아왔다. 올리버스톤 감독은 1987년 제작한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서 돈만 추구하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마이클 더글라스는 주인공인 기업 사냥꾼 역을 맡아 '탐욕이 선(Greed is good)'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생존법칙을 실감나게 연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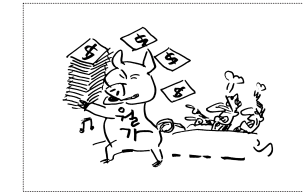
미국의 저명한 경제사가 존 스틸 고든은 2002년 발간한 '월스트리트 재국'이란 책에서 350여년간의 월스트리트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 아누스의 얼굴을 한 금융제국의 탐욕적인 게임과 심판없이 클로

벌한 금융시장의 파국을 경고했다.

금융권을 불신하는 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보면 월스트리트의 상징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황소가 아닌 돼지라는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 에대미진으로 손 쉽게 돈을 번다는 국내 금융권도 월스트리트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 하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월가와 돼지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